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개원 13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개원 13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9일 5층 대강당에서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대내외 귀빈을 비롯해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해 개원 13주년을 축하했다.

기념행사에 앞서 10년 장기근속자 4명에 대한 시상에 이어, ‘자랑스러운 동국의학인상’으로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가 수상했으며, ‘동국 학술연구상’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 신경과 김동억 교수, 한의학과 이주희 교수가 수상했다. 또, 모범 교직원 17명에 대해 표창하고 각각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이진호 의료원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경기서북부에서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화합하길 바란다.”라며, “나보다는 우리를 우리보다는 환자와 환자 가족을 먼저 배려하는 동국대학교병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래 진료실 환경 개선공사 시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외래 진료 공간 확보를 위한 진료실 확충 공사를 시행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기존의 1층과 2층의 외래 진료 접수 공간을 대폭 줄이고 부족한 진료실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 재배치를 통해 환자의 대기 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진료 접수 공간을 마련해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병원은 현재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노후화된 시설 개선은 물론 환자 및 직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인 환경개선공사를 계획 중에 있다.

이번 공사를 주관한 시설팀장은 “환자와 직원들의 쾌적한 공간 활용을 위한 환경개선 공사로 공사 중 다소 소음이나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직원과 환자, 환자 보호자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체계적인 공사계획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다음 달 초 7병동에 추가로 5인실 2실, 4인실 1실, 1인실 1실 등 총 16병상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다제내성균 환경관리 모니터링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감염관리실은 지난 8월부터 병동 및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제내성균 환자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오염도 측정을 시행하고 있다.

다제내성균이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하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의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는 미생물로 의료관련감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이다. 이로써, 환자에게 다제내성균이 발생되면 치료를 위한 항균제가 한정되어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의료 환경에서 균이 장기간 생존할 수 있고 오염된 환경을 접촉한 의료진의 손을 통해 전파가 가능해 병원 환경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감염관리실에서는 안전한 병원 환경관리를 위해 ATP(adenosin triphosphate)기계를 이용해 환경오염도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시행했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해당부서에 피드백하고 교육을 진행했다.

감염관리실장 박성연 교수는 “이번 개선 활동으로 병원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환경소독제로 환자의 주변 환경 및 직원이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 소독관리를 통해 직원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병원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 서울국제트래블마켓 참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국제진료센터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2018 서울국제트래블마켓 행사에 참가했다.

서울국제트래블마켓은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내 최대 B2B 관광산업 관련 행사로 해외 주요여행사를 초청해 국내 관광업체와의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날 행사에서 의료관광 분야의 셀러로 참가해 10개국 20개 업체와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으며, 기존 시장 이외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신규시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추가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일본 등 주요 방한 국가를 포함해 해외 50개국 400개의 여행사와 국내 1,000여 개의 관광산업 유관업체가 참가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로 국가 브랜드인 메디컬 코리아를 알리는 데에 선두주자로서 더욱 힘쓸 예정이다.

